

《타샤의 집》  
손때 묻은 옛 집의  
노스탤지어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내용을 밝히고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 책 전부를 설명하기 어렵다. 매달 새롭게 탄생하는 수많은 책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혹은 읽고 싶은 책을 찾기란 더더욱 어렵다. 일상의 어지러움을 잊기 위해 책 한 권을 집어 든다. 종종 서점의 어린이 코너를 찾아 동화나 그림책을 두어 권씩을 읽고 나오는 일은 사소한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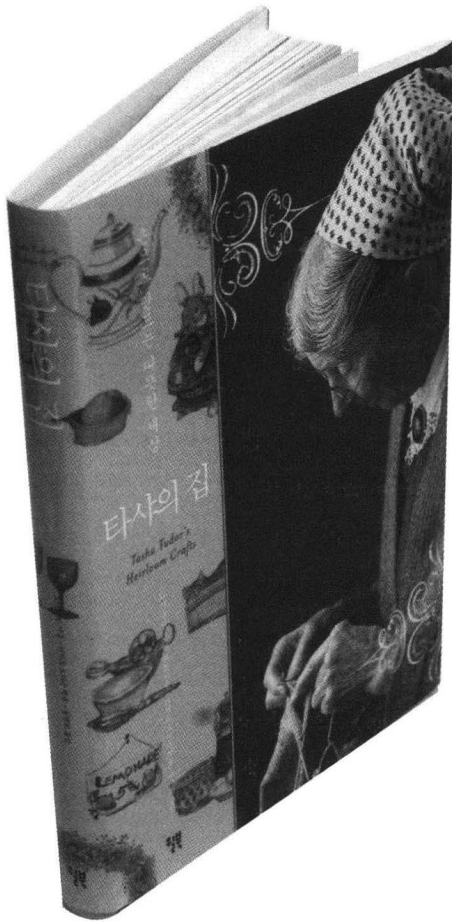
미국 동화작가 타샤 튜더의 집을 소개한 《타샤의 집》은 사실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쳤던 책이다. 아흔 살이 넘는 할머니 동화작가의 집이 얼마나 별다른가 하는 단순한 편견 때문이었다. 그래도 오며가며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슬쩍 손이 간다. 그리고 펼쳐든 책 속에서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본 듯한 풍경을 만났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 난로. 선반 위에는 불 붙인 양초 두 개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앉아 넓은 켈트 이불보를 들여다 보고 있는 할머니! 심지어 그녀의 은빛 머리위에는 체크무늬 머릿수건이 둘러져 있다. 타샤 튜더라는 이 나이 지긋한 할머니 동화작가의 집과 정원이 미국에서 꽤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있다. 누구라도 책을 훑고 나면 그런 의문 따위 진작에 털어냈을 거다. 그리고 정말 동화같은 그녀의 생활에 동경을 품게 되겠지.

타샤의 집은 작은 골동품가게와 같다. 베틀과 물레는 기본이고 생활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100년도 더 된 듯 예스러운 것 투성이다. 타샤 할머니의 손은 항상 바빠 움직인다. 손뜨개 솔이 탄생하고 인형이 만들어진다. 정원 일을 하기 위해 입는 19세기 풍 드레스도 직접 만들었다. 심지어 정원에서 키운 허브로 핸드크림을, 염소젖으로 버터와 치즈를 만든다.

버몬트 주 시골에 위치한 타샤 튜더의 집은 30만 평이나 되는 대지위에 있다. 19세기 생활을 좋아하는 그녀의 취향대로 집안 곳곳에는 골동품 가구가 흔하게 놓여 있고 음식은 나무뿔감을 사용하는 스토브에서 만든다. 당연히 그릇도 옛날식이다. 마치 직접 본 듯 읊어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그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아 담아낸 사진과 친절한 소개 덕분이다. 화보처럼 큼직하게 실린 사진이 그녀의 그 모든 일들이 매일, 진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타샤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굵고 튼튼한 지붕 서까래,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 전 방식대로 아들이 지어준 집과 헛간, 그리고 그녀가 손수 가꾼 정원의 낙엽들 까지... 우리네 살림살이와 차이가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귀농의 환상'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녀의 생활 터전과 삶의 풍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오래 머무른 대목은 다름아닌 주방이다. '과거의 맛' 이라고 이름 붙여진 페이지를 보자면 소개 리스트



《타사의 집》

토바 마틴, 타샤 튜더 지음 | 공경희 옮김 | 월북 | 230쪽 | 값 12,000원

에 장작 스토브 요리가 올라와 있다. 사실 베틀로 직접 짠 모직 천이나 천연 염색 옷감들에도 마음이 끌리긴 하지만 구릿빛 주전자와 프라이팬, 각종 주방기구들이 걸려있는 벽과 그 아래 우람하게 자리 잡은 장작 스토브의 위용을 보노라면 정원이 아무리 넓고 아름답다 한들 이 아늑함에 비할 수 없을 거라 여겨진다. 부엌 벽면을 장식한 꽃무늬 띠벽지며 타샤가 아침나절 발을 올리고 책을 읽는다는 흔들의자를 발견하니 갈등의 여지조차 없다.

사진에 담지 못한 나머지 풍경들이 활자 안에 조근조근 펼쳐져 있다. 요리를 좋아하는 타샤 할머니는 웬만한 요리법이라면 거의 외우고 있단다. 혹시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집 안에 내려오는 요리책- 손으로 직접 적어서 줄로 묶은-이 있기에 누구라도 요리법을 물어오면 곧바로 알려 준다하니 무엇이든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무슨 요리이건 타샤가 만들어낸 맛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어떤 음식이든 장작 스토브로 조리하면 더 맛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니까 바로 그 장작스토브가 없다면 물어보나 마나.

타샤 튜더의 예스러운 집은 그녀의 취향, 습관, 자연 혜택

그 외 수십 가지 요건들로 꾸며진 것이 아니다. 놀라우리만치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 당해낼 재간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해치우는 그녀의 정열이 남다른 비법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 한다면 그녀만큼 삶과 자연과 주변 모든 것에 사랑을 품은 그녀의 마음이다. 풍성한 볼거리와 배울 것 투성이인 그녀의 집에서 가장 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

뭐든지 정성껏 즐겁게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 집에 놓여 있는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제자리를 찾아 알맞게 그 역할을 해내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주인이 품고 있는 마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라는 거야' 라고 반문하기 쉬운 정도로 책에 담긴 내용은 그녀가 해내는 모든 특별한 취미활동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중 어떤 작은 일 하나조차도 절대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어볼 심산이다. 그 마음을 닮고 싶으니까. **★**

송보경 기자